

## 2025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 문학-출간지원 】심의평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제와 창의적인 기획들이 돋보이는 응모작들이 많았다. 사회현실의 중요한 변화와 흐름들을 개성적인 형식 속에 소화하려는 진지한 시도들도 돋보여서 반가웠다. 응모작들 중에서 인류 공동체의 생존 위기와 개인의 구체적인 일상을 연결하여 문학의 형식으로 생동감 있게 포착한 작품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제의 구체성과 장르 기획이 효과적으로 결합된 점도 돋보이는 덕목이다. 무엇보다도 작품이 지닌 개성적인 목소리가 적절한 형식으로 독자에게 전달될 때 문학적인 감응력을 지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 분야에서는 한 권의 시집으로 충분한 밀도를 지닌 작품들이 많았다. 자신이 추구해온 시적 세계를 심화하고 유려한 언어 감각을 보여준 응모작들이 많아서 반가웠다. 심사 과정에서는 시적 완성도를 염두에 두면서 달라진 현실의 문제를 개성적인 시선으로 포착하는 새롭고 도전적인 시적 모색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소설 분야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주제의 서사화를 시도하는 중단편 장르의 기획들이 많았다. 역사적 상상력을 소재로 한 묵직한 문제 제기와 소수자와 청년 현실, 공동체의 소중한 일상 감각을 환기하는 작품들 중에서 구성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독자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발랄한 문제 제기가 돋보이는 도입부를 가진 작품들도 있었는데 주제의식을 끝까지 이끌지 못하거나 상투적인 대화로 장면들을 소비하는 사례들도 많아서 아쉬웠다.

아동문학과 그림책 분야는 동화, 동시, 청소년 장르 등 다양한 형식을 포괄하면서 개성적인 소재의 포착과 생동감 있는 대화 구성으로 읽는 재미와 감동을 준 작품들이 많았다. 간결한 형식에 따르는 언어의 세밀함이나 완성도가 중요한 만큼 자연스럽게 섬세한 대화와 구성을 갖춘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 현실의 중요한 현실적 문제들을 놓치지 않는 실감나는 작품들을 고르려고 하였다. 물론 일부 작품들에서는 어린이의 시선에 맞춘다는 의도로 작품의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 작위적인 계몽성을 보여주거나 비약적 공상 요소를 무리하게 결합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서 아쉬웠다. 수필과 평론 희곡 분야는 사회적 소재나 일상 이야기를 평이하게 드러낸 작품들이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주제의식과 기획이 모아지는 사례가 드물었다.

올해는 전체적인 지원 분야에서 응모작 수가 크게 늘었는데 일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제한된 종수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열정과 노력을 담은 소중한 작품을 응모해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2025.3.7.

### 심의위원

김성규 (시인)

김이정 (소설가)

민경혜 (아동문학가)

백지연 (문학평론가)